

우리는 증인

제자들의 질문 / 제자에서 증인으로

한줄요약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다.

## 도입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상대방이 자꾸 자기가 바라는대로 이해하고 말한다면 그보다 답답한 일이 없을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보통은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게 일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 사람들,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 1) 제자들의 질문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양육이란 사랑과 인내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전 사역 동안 계속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만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꿈꾸던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며 도래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인간의 나라가 아님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금 정치적 회복에 관한 기대가 되살아나게 된 배경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도 옛 생각을 버린다는게 인간의 한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버릇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는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믿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알 수 있습니다.

### 2) 제자에서 증인으로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줘야 알겠냐?. 내 나라는 완전히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말해주어야 알겠느냐?〉라고 충분히 그들을 훈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천절히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에서 더 자세히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엔 실패의 위험이 큼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이 느끼라고 영적 왕홀함을 느끼라고 보내주신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하여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시며 보이신 사랑을 힘입어 한없이 부족한 모습의 제자에서 담대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증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처: R.C. 스프롤 사도행전 강해, 두란노 HOW주석 38\_사도행전\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생명의 삶+ 학개, 사도행전 1-9장

## 사도행전 9장 1-9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 / 예수님을 만난 후

한줄요약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 도입

인생을 살다보면 각각의 삶에서 인생의 전환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 전환점이 각각 다르게 오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패턴이 작게든 크게든 변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작던 크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작다면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이고 크다면 큰 자체로 귀중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 1)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은 이미 7장 스테반의 순교때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고,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 등등한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을 주도하며 9장에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전권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당시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의 스승의 문하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써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에 더 격렬하게 반응한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뜬금 없이 나는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추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론 그들은 진리가 아니지만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은 충성된 자들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 2) 예수님을 만난 후

하지만 이런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증인>으로써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방법은 급작스럽고 과격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 눈물 콧물 다 쏟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 처럼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시간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하루 중 정오였습니다. 정오에 이 태양보다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며 자신은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님 이라고 밝힙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했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취하려 갔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배운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에서는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신이 가진 어마어마한 위치를 모두 버립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울처럼 급작스럽게 변하는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 다르지만 반드시 삶의 변화는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점은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세상이 중심이었다면 하나하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온 몸이 젖어버리듯 지금 뒤돌아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느덧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되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귀중한 시간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출처: R.C. 스프롤 사도행전 강해, 생명의 삶+ 학개, 사도행전 1-9장**

## **사도행전 15장 1-11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레논쟁 / 구원은 믿음으로

### **한줄요약**

구원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 **도입**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 받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어떤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 율법, 할레논쟁**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이런 구원에 대한 논쟁이 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한 그룹이 안디옥에 와서 할레와 모세의 율법 준수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자 바나바, 바울과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가 중요하기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논의를 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여기서 왜 논쟁이 붙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할레가 구원의 포인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속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축복을 얻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저주를 예수님 위에 부으셨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얻으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있는 저주는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할레가 필요 없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일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 **2) 구원은 믿음으로**

이런 사실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논의 끝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우리 조상들도 능히 메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하며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혹은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며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상대방을 보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ですよ.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 받을 길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을 그런

에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믿음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격하여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처: R.C. 스프로울 사도행전 강해, 생명의 삶+ 사도행전 10-20장

사도행전 20장 17-35절

주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 주님과 함께 달리십시오.

한줄요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 도입

우리가 어딘가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 할 때 어떨습니까? 그 마음이 무겁지만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과 권면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고난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며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목회적 당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 1) 우리가 전해야 할 것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며 권면하는데 먼저 겸손함과 눈물로 성도를 섬기고 유대인의 간계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반드시 전해야 할 말 즉 복음을 반드시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현대의 우리를 본다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비난과 조롱의 수위는 이 시절이 더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 표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꾼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당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 사람들이 꺼린다고 주저하지 말고 겸손하게 담대히 전할 때 분명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 2) 주님과 함께 달리십시오.

이어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 즉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귀한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 내, 외부적으로 엄청난 방해와 고난이 분명히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 때 그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줄 것이며, 그 기쁨은 강한자가 되어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게 하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받는 것을 좋게 여기는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복있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했을 때 그 일이 힘들다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은 3자가 보기엔 너무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기쁨과 감사 그 자체였고 그 삶은 믿는 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기쁨이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출처: R.C. 스프로울 사도행전 강해, 생명의 삶+ 사도행전 10-20장

두란노 HOW주석 38\_사도행전\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것 / 거침없이 전해야 하는 복음

한줄요약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두렵없이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릴 위해 예비하신 감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 도입

그림을 눈 앞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림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떨어져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무엇인지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 모두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 앞에 닥친 상황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그저 순종하기만 했을 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 1) 주님이 예비하신 것

28장의 바울은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드디어 로마로 왔습니다. 이 로마로 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으신 로마라는 환경과 배경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유럽과 지중해를 장악했던 시기에 전성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치안이 아주 좋아 로마 어디를 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는 식민지 나라와 본인들 기준에 이방인에게 아주 관대한 나라였으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 철학도 존중하여 듣고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공을 세운다면 시민권도 주는 나라였고 황제조차도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엄격하게 지켜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치안은 유럽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에 유용했으며 그들의 유연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의견을 나누며 설령 미련하게 생각하더라도 존중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풍조는 종교와 사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이 유대인의 왕국이었다면 죽었을 문제가 로마의 법은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환경을 만들어주셨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 2) 거침없이 전해야 하는 복음

그 자유로운 분위기는 가택연금을 당한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배경이 되었고 그 배경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데 그 배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 복음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 어떤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은 정확하고 그들을 고린도전서에 고백한 말씀처럼 물주고, 심었어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도 향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구원의 빛은 이방인에게로 향했고 그 빛은 현재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은 말기는 사역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그저 전하는 일에 순종했을 뿐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바울에게서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한치의 망설임이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릴 위해 예비하신 감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R.C. 스프로울 사도행전 강해, 생명의 삶+ 사도행전 20-28장,  
두란노 HOW주석 38\_사도행전\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